

# 조선후기 왕실 忌辰祭의 실행과 운영

정재훈\*

- 
- |                      |                       |
|----------------------|-----------------------|
| 1. 머리말               | 4. 조선후기 왕실 기신제 운영의 실상 |
| 2. 조선전기 왕실 기신제의 이중구조 | 5. 맺음말                |
| 3. 조선후기 왕실 기신제의 실행   |                       |
- 

초록: 忌辰祭는 죽은 사람의 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시대에 따라 혹은 유행하는 종교 혹은 사상에 의해 다른 형태로 치르게 되었다. 불교가 지배하였던 시대에는 忌晨齋의 형태로 왕실에서 先王과 先后的 忌日을 맞아 이를 추모하여 지낸 불교식 忌祭祀가 있었다. 이에 비해 유교식의 기제사에는 불교와는 다른 형태로 봉행하는 忌辰祭가 있다. 이 둘은 불교와 유교라는 종교적 차이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방법과 장소 등에서 많은 다른 점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숭상되었으므로 불교식으로 기신제가 치루어져 무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원에서 행해졌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에 행해진 유교의 기신제는 기본적으로는 사당에서 지냈으며, 왕의 경우 능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전기까지 기신제는 불교식인 기신제의 형태로 거행되다가 종종 때에야 혁파되었다. 이후 기신제는 유교의 방식대로 지내게 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왕릉에서 지내게 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선조 이후에는 불교식 기신제를 대체하여 왕릉에서 기신제가 행해졌다. 때로는 기신제가 원묘에서 거행되기도 하였으나 왕릉에서 거행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영조는 왕릉에서 행하는 기신제에 직접 참여하여 친행하는 예를 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왕이 왕릉 기신제에 참여하는 예가 등장하였고, 이를 의절로 만들었으며, 국왕 뿐만이 아니라 왕세자가 주체가 되는 기신제의가 등장하였다. 또한 영조 때에 새롭게 정비된 園制에 의해 園에서 치러지는 기신제의도 정비되었다.

핵심어: 忌辰祭, 忌晨齋, 王陵忌辰祭, 忌辰祭儀

---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1. 머리말

忌辰祭는 죽은 사람의 忌日에 지내는 제사이다. 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시대에 따라 혹은 유행하는 종교 혹은 사상에 의해 다른 형태로 치르게 되었다. 불교가 지배하였던 시대에는 忌晨齋의 형태로 왕실에서 先王과 先后의 忌日을 맞아 이를 추모하여 지낸 불교식 忌祭祀가 있었다. 이에 비해 유교식의 기제사에는 불교와는 다른 형태로 봉행하는 忌辰祭가 있다. 이 둘은 불교와 유교라는 종교적 차이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방법과 장소 등에서 많은 다른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불교식의 기신제는 무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원에서 행해졌고, 이에 비해 유교의 기신제는 기본적으로는 사당에서 지냈으며, 왕의 경우 능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장소만이 달랐던 것은 아니다. 제사 혹은 재를 지내는 방식도 불교식의 기신제는 영산재의 형태를 띠었던 것에 비해 유교식의 기제사는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통칭의 기신제는 신라 이래로 우리 역사에서 지속된 것으로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곧 불교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불교의 방식대로, 유교가 지배하던 시기에는 유교의 방식대로 행해지게 된 것이다.

조선의 경우에는 성리학을 이념적 지향으로 삼았다. 그러나 조선의 모든 의례가 성리학에 따라 조선 초부터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초부터 유교식, 성리학의 방식대로 시행된 예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유교의 방식대로 변화된 의례도 있었다. 기신제의 경우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조선전기까지 불교식인 기신재의 형태로 거행되다가 중종 때에야 혁파되었다. 이후 기신제는 유교의 방식대로 지내게 되었으나 조선후기에는 왕릉에서 지내게 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실 왕실에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불교식의 기신재에 집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성찰을 요한다. 조선전기에 성리학적 질서가 추구되었으나 여기에 왜 기신재는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기신재의 혁파논의를 둘러싼 갈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유교식으로 치뤄지는 기신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忌祭는 삼년상을 치룬 다음 기일부터 제사를 치렀다. 제사의 경우 朱子家禮에 의하면 祠堂(家廟)에서의 四時

祭가 주된 것이었으며, 기제사는 기일에 집에서 치르고, 묘제의 경우 3월 상순에 택일하여 1년에 한 차례 묘제를 거행하는 것이 주였다.<sup>1)</sup> 따라서 기일에 묘소에 가서 지내는 묘제는 유교적인 방식에서 볼 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이후 왕릉에서 기신제가 치러진다. 불교식의 기신제가 혁파된 이후 왕릉에서의 능기신제가 시행된 것이다. 대체로 신하를 보내어 기신제가 행해지나 영조와 정조 때에는 국왕이 직접 가서 친행하는 능기신제도 치러졌다. 이런 사례는 조선왕조에서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었으며, 영조와 정조 시기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왕이 직접 능에 행차하게 됨에 따라 능이나 원에서 행하는 여러 관련 의례의 정비가 잇따르게 되었다. 『춘관통고』에 반영된 여러 관련 의절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 2. 조선전기 왕실 기신제의 이중구조

조상숭배와 관련하여 돌아가신 이의 忌日에 제사를 지내는 기제사의 전통은 매우 오래 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유교식으로는 삼년상을 치른 경우 기신제의 기일은 그 이후이므로 이때부터 제사를 지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조상숭배와 관련되어 몇 가지 형태가 있었다. 상고시대부터 계승된 陵, 불교식 예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眞殿, 중국의 유교적 예제에 바탕을 둔 太廟,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예제를 절충한 景靈殿 등이 그것이다.<sup>2)</sup> 이 가운데서 기신제와 관련된 것은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모신 진전(사원)이다. 진전(사원)에서 진영을 모시고 忌日마다 불교식 齋를 올려서 복을 빌었던 것이다. 대체로 진영이 모셔진 진전이 있었던 사원인 진전사원은 왕릉 부근에 위치하였으며, 기일에 국왕이 행차하였으므로 시설과 장식이 화려했고, 따라서 사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조선에서는 유교식 상례에 따라 부모의 상례를 3년 동안 치르고 나서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忌祭(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초부터 기제사가 충실하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1) 『朱子家禮』 권7, 『祭禮』 ‘四時祭’, ‘忌日’, ‘墓制’.

2) 허홍식, 1986 『佛敎와 融合된 王室의 祖上崇拜』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조선초에는 대체로 왕실에서는 오례를 바탕으로 한 國恤 운영을 통해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고 왕권의 강화 수단으로 삼은 반면, 사대부들은 『朱子家禮』의 사례 가운데 하나인 상·제례의 운영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명분을 실현하는 교화수단으로 삼았다.

기신제와 관련해서도 왕실에서는 이중적인 구조의 기제가 고려와 같이 유지되었다. 즉 고려시대에는 기제사와 진전제가 동시에 언급되어 이중적으로 지낸 것으로 보인다.<sup>3)</sup> 이런 경향은 조선에도 이어져 原廟에서의 기신제와 진전에서 기신제가 초기에는 이중으로 시행되었다.

우선 왕실에서는 기일에 사원에서 재를 지내는 忌晨齋를 조선전기 내내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세종대에 기신제의 혁파논의가 있기는 하였다.<sup>4)</sup> 그러나 대체로 종종 때에 혁파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기신제가 이어졌다.<sup>5)</sup> 기신제의 규모는 세종 때 왕후의 기신제를 지내는 데 천여 명이나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로 지내져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는 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다.<sup>6)</sup>

기신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sup>7)</sup>

1. 忌日이 되기 전날 저녁에 스님들을 불러 先王과 先后的 영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거행하여 神主에 모신다. 이 때 영혼을 부르는 방법은 중들이 소리쳐 임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2. 다음날 아침에 神主를 깨끗이 목욕시킨다.
3. 아무런 장식이 없는 평상 위에다 목욕시킨 神主를 놓는다. 이 평상은 사방으로 종이돈을 둘러 장식한다.
4. 神主가 놓인 평상을 들고 옆문을 통해서 佛像이 놓인 곳으로 갖다 놓는다. 이 때 스님들이 둘러서서 징과 북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신주를 맞아들인다.
5. 神主를 사용하여 부처에게 예배하는 시늉을 내게 한다.

3) 『고려사』 제89권 열전 제2 후비 명덕태후 홍씨; 『고려사』 제89권 열전 제2 후비 희빈 윤씨.

4) 한우근, 1993 『世宗朝 禪教兩宗에로의 整備』, 『儒教政治와 佛教』, 일조각.

5) 심효섭, 2003 『조선전기 忌晨齋의 設行과 儀禮』, 『佛教學報』 40.

6) 『세종실록』 권16, 세종 4년, 5월 丙寅.

7) 金鐸, 1990 『朝鮮前期의 傳統信仰 — 衛護와 忌晨齋를 중심으로 —』, 『宗教研究』 6-1, 60-61면.

6. 미리 준비된 疏文을 읽어 福을 빈다. 이때 음식물과 예물을 佛像 앞에 놓는다.

7. 의식이 모두 끝난 뒤 의례에 사용된 음식물을 먼저 스님들께 공양드린다. 그 후 또 다시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기일에 지내는 제사는 불교식의 기신제만이 아니라 原廟에서도 지내졌다. 대표적인 원묘인 文昭殿의 경우 忌祭를 지내는 곳이었다. 태종 17년, 태조와 신의왕후의 기신에 佛祠에 齋를 베풀고 원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생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변계량의 건의에 따라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다.<sup>8)</sup> 그런데 문소전은 원래 선왕의 진영을 모신 眞殿의 성격이 강했다가 세종대에 가서야 『주자가례』에 입각한 家廟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sup>9)</sup> 따라서 이후에는 기제를 문소전에서 지내게 됨에 따라 문소전에서의 ‘忌晨祭儀’를 갖추게 되었다.<sup>10)</sup> 원묘의 문소전이 처음에는 진전의 성격을 지녔지만 점차 가묘의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왕기신제는 忌晨齋와 忌辰(晨)祭의 두 가지가 공존하는 형태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때 정리된 기신제는 후에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대상이 된다.<sup>11)</sup> ‘文昭殿忌晨儀’는 齋戒-陳設-行禮(初獻-亞獻-終獻)의 순으로 치러진다.

기신제가 문소전에서 행해지는 유교식으로 정리됨에도 불구하고 불교식의 기신제는 중종대까지 지속된다. 중종대에 기묘사림의 등장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된 기신제는 중종 11년에 드디어 혁파된다. 기신제의 혁파는 이미 성종대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삿날에 문소전에만 제사하고 기신제를 혁파하였다는 기록이 이미 성종대에 보이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러다가 중종 초에는 경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종반정 이후 기신제에 대한 혁파 논의가 활발하게 등장한 것에서 기신제가 다시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신제를 혁파하려는 주장에는 몇 가지 논리가 있다. 의례과정에서 先王을 모독하는 절차가 있는 등 불교의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졌으며, 반대로 사대부의 忌祭도 이미 『주자가례』에 따라 家廟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위기 등과 관

8) 『태종실록』 권34, 태종 17년 9월 己巳.

9) 지두환, 1994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출판부, 86-90면.

10)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5월 庚申. “禮曹啓文昭殿忌晨祭儀注(후략)”

11) 『국조오례의』 권1, ‘文昭殿忌晨儀’.

12) 『성종실록』 권87, 성종 8년 12월 壬寅.

런이 깊다. 또한 기신제는 內需司長利 혁파문제와 관련되어 궁중세력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혁파논의는 후비나 내명부 등의 궁중세력의 견제와도 관련이 있었다.<sup>13)</sup>

기신제는 중종 11년(1516)에 혁파되었고, 이에 따라 문소전·연은전에서 거행하던 先王·先后的 忌辰에 거행되는 제사는 그대로 두고, 忌日에 중국의 예에 따라 능침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sup>14)</sup> 그후 기신제는 명종 때 문정왕후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복설되기도 하나 선조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

### 3. 조선후기 왕실 기신제의 설행

선조 이후에는 불교식의 기신제를 대신하여 왕릉에서 기신제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에도 반드시 기신제가 왕릉에서만 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 들어 문소전은 혁파되었지만 선조대에 선조의 첫째 왕비 박씨인懿仁王后의 대상 후 첫번째 기신제는 孝敬殿에서 시행하는데, 원묘에 비할 수는 없지만 『국조오례의』의 문소전 기신제에 따라 거행하기도 하였다.<sup>15)</sup> 또 예조에서는 앞의 건의를 하면서 평소 국가의 忌祭를 원묘에서 거행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임진난 이후 부득이하게 능에서 거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광해군때 생모 공빈 김씨를 추숭하여 奉慈殿을 세우고 여기에 기신제를 드리는 의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sup>16)</sup> 이러한 사례로 보면 기신제는 왕릉과 원묘, 혹은 원묘에 해당하는 사당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왕릉에서 지내는 기신제가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영조에 의해서이다. 영조는 26년에 眞殿의 酌獻禮를 지내는 절차에 대해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주문을 한 영조의 실제 의도는 園陵에 親祭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sup>17)</sup> 실제로 영조 때에는 陵園制가 정비되었는데, 능원제는 사실 중국의 제도에도 없었던 새로운

13) 李秉杰, 1994 『朝鮮前期 內佛堂·忌辰齋의 革罷論議와 그 推移』, 『九谷黃鍾東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363-366면.

14)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6월 丙寅.

15) 『선조실록』 권161, 선조 36년 4월 戊戌.

16) 『광해군일기』 권27, 광해군 2년 윤3월 戊辰.

17) 『영조실록』 권63, 영조 22년 5월 丁酉.

묘제였다.<sup>18)</sup> 즉 묘제에는 원래 왕의 무덤인 (왕)능과 사대부의 무덤인 묘만이 존재하였다. 능과 묘 사이에 해당하는 墓制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sup>19)</sup>

그러던 묘제 양식에서 인조 때 인조의 사친인 정원군을 왕으로 추존하기 전에 묘를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興慶園이라고 하여 園制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원군이 원종으로 추존되고, 이에 따라 원호 역시 능호로 격상됨에 따라 원제는 자취를 감추었다. 영조는 바로 이러한 원제를 활용하여 사친의 廟와 墓를 宮園으로 승격시켰던 것이다.<sup>20)</sup> 이에 따라 영조는 궁과 원에 관련된 제도와 의절을 정리한 각종 『宮園式例』와 관련된 책자를 펴내기도 하였다.<sup>21)</sup>

기신제 역시 영조가 친행한 사례가 영조 37년(1761)에 보인다.<sup>22)</sup> 이에 따라 이전까지 신하들을 보내 지내던 기신제에서 제사의 주체가 국왕으로 변함에 따라 새로운 의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마련되어 『춘관통고』에 반영된 기신제와 관련된 새로운 의절은 다음과 같다.

기신친향제릉의忌晨親享諸陵儀  
 기신왕세자향릉의忌晨王世子享陵儀  
 기신친향영우원의忌晨親享永祐園儀  
 기신향영우원의忌晨享永祐園儀  
 기신친제순강원의忌晨親祭順康園儀  
 기신친제소령원의忌晨親祭昭寧園儀  
 기신제순강원의忌晨祭順康園儀  
 기신제소령원의忌晨祭昭寧園儀

이러한 의절들은 모두 『춘관통고』에 새롭게 등장한 ‘今儀’여서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대체로 능행과 관련하여 금의로 추가된 것은 거의 국왕의 親行과 관련되거나 왕세자 혹은 왕세손이 제사의 주체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신제를 제외하고 능원에 관련되어 추가된 의례는 다음과 같다.

왕세자배릉의王世子拜陵儀

18) 鄭景姬, 2004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19) 『增補文獻備考』 卷71, 禮考4, 園墓.

20) 『承政院日記』 英祖 29年 6月 25日(己酉).

21) 『宮園式禮補編』(奎 2068, 2069).

22) 『영조실록』 권98, 영조 37년 8월 庚辰.

친향제릉의親享諸陵儀  
 배릉시왕세자아헌의拜陵時王世子亞獻儀  
 배릉시왕세손아헌의拜陵時王世孫亞獻儀  
 능원친향시왕세손수가입참의陵園親享時王世孫隨駕入參儀  
 배영우원의拜永祐園儀  
 배영우원시왕세자아헌의拜永祐園時王世子亞獻儀  
 배영우원시왕세손아헌의拜永祐園時王世孫亞獻儀  
 왕세자배영우원의王世子拜永祐園儀  
 왕세손배영우원의王世孫拜永祐園儀  
 사시금속절향영우원의四時及俗節享永祐園儀  
 소령원친향시왕세손아헌의昭寧園親享時王世孫亞獻儀  
 배순강원의拜順康園儀  
 배소령원의拜昭寧園儀

위의 의절들은 능에서의 의절과 관련하여 『국조오례의』에서는 拜陵儀와 四時及俗節朔望享諸陵儀밖에는 없던 것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증가된 것이다. 영조 때 영조의 친행으로 행해진 왕릉 기신제의 경우는 곧 園에서의 기신제에 국왕이 친행하여 기신제를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영조의 경우 생모인 淑嬪崔氏의 묘인 昭寧園에 친행하여 기신제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능침에 대한 영조의 관심이 높아져 기신제만은 아니지만 능원에서 祭品에 사용되는 쌀이 영조 24년 이후 4천 수백 석이 되었다고 지적할 만큼 능원에서의 행사가 많아졌다.<sup>23)</sup> 기신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신하들 가운데서는 단종비인 定順王后의 능에 重臣을 보내 제사를 섭행하려는 영조에게 祧遷한 왕릉에서는 기신제를 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지적하며 人情은 다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의에는 절차가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생겨났다.<sup>24)</sup>

23)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6월 戊寅.

24) 『영조실록』 권97, 영조 37년 3월 癸卯.



#### 4. 조선후기 왕실 기신제 운영의 실상

조선후기 기신제는 왕릉에 직접 가서 능에서 지내는 기신제가 대표적인 예가 되었다. 이에 따라 능에서 치루어진 기신제는 진설, 행례의 순서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기신친향제릉의(忌晨親享諸陵儀)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25)</sup>

【진설(陳設)】 제삿날 전 1일 전설사(典設司)는 대차(大次)를 능소(陵所)의 재실(齋室)에, 소차(小次)를 능침(陵寢)의 측면에 설치한다. 능사(陵司)는 소속 인원을 이끌고 능침의 안과 밖을 청소한다. 집례(執禮)는 전하 판위(版位)를 능침의 동쪽 계단의 위에,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의 위(位)를 동쪽 계단의 아래에, 집사자(執事者)의 위를 헌관(獻官)의 뒤쪽에, 집례의 위를 계단의 아래 신도(神道)의 왼쪽에, 찬자(贊者)·알자(謁者)·찬인(贊引)의 위를 남쪽의 조금 물린 위치에,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설치한다. 제삿날 당일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전사관(典祀官)과 능사는 소속인원을 이끌고 신좌(神座)를 능침의 북쪽에, 축판(祝板)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린다. 향로(香爐)와 향합(香盒)은 모두 신위 앞에 불을 붙이고, 제기(祭器)를 규식에 따라 설치한다.

【행례(行禮)】 행사 전 5각에 전사관과 능사는 찬구(饌具)를 차린다. 행사 전 4각에 모든 향관(享官)과 배향관은 모두 천담복(淺淡服)과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를 차려입고 능침의 남쪽에 나간다. 찬자와 알자, 찬인은 계단 사이의 배위(拜位)에 나가 서서 사배를 마치고 각자의 정한 자리로 나아간다[취위(就位)]. 행사 전 3각에 모든 향관은 관세(盥帨)하고, 감찰·전사관·대축·축사·재량은 들어와서 계단 사이의 배위에 선다. 집례의 말에 따라 감찰 이하 모두 사배한다. 마치면 감찰과 모든 집사는 제 자리로 취위한다. 아헌관과 종헌관도 들어와 취위한다. 전사관과 능사가 선(膳)을 올리고 마치면 좌통례(左通禮)가 소차 앞에 이르러 중엄(中嚴)을 계청한다. 3경(更) 5점(點)에 좌통례는 또 바깥준비가 다 되었음[외판(外辦)]을 아뢴다. 임금은 익선관과 참포(黻袍), 오서대(烏犀帶), 백피화(白皮靴)를 갖추고 관세(盥帨)하고 나온다. 임금은 여(輿)를 타고 홍문(紅門) 밖에 이르러 여에서 내린다. 임금은 동쪽 계단을 올라 판위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집례

25) 『春官通考』 권23 吉禮·陵寢.

의 예를 행하라는 말에 따라 임금은 국궁·사배·홍·평신을 한다.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한다.

초헌(初獻): 집례의 말에 따라 임금은 존소(尊所)에 이르러 서향하여 선다. 집존자(集尊者)는 먹(幕)을 들고, 근시 1인이 술을 따르면 1인이 잔에 받는다. 임금이 신위 앞으로 나가 북향하여 선 후 찬례의 계청에 따라 무릎을 꿇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무릎을 꿇는다. 근시 1인이 향합(香盞)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고 무릎을 꿇고 찬례의 계청에 따라 임금은 세번 향을 올린다[삼상향(三上香)]. 근시가 안(案) 위에 향로를 올리고, 또 근시가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린다. 찬례의 계청에 따라 임금이 잔을 들어서 올려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린다. 다시 부작(副爵)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王后)의 신위 앞에 올린다. 임금은 찬례의 계청에 따라 부복·홍하고 약간 물러나서 북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는다. 마치면 찬례의 계청에 따라 임금은 부복·홍·평신하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따라 한다. 임금이 문을 나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복위(復位)]. 다시 찬례의 인도로 임금은 소차로 들어간다.

아헌(亞獻): 집례의 말에 따라 알자의 인도로 아헌관은 존소에 올라가서 서향하여 선다. 집사자가 먹을 들어 집사자 1인은 술을 따르고 1인은 잔에 술을 받는다.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신위의 앞에 북향하여 섰다가 무릎을 꿇는다. 아헌관은 집사자에게 술잔에 술을 받아 다시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린다. 아헌관은 집사자에게 부작을 받아 다시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린다. 아헌관은 부복·홍·평신하고 내려와 복위한다.

종헌(終獻): 집례의 말에 따라 알자의 인도로 종헌관은 예를 행하기를 아헌관과 같이 한다. 찬례의 인도로 임금은 소차에서 나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복위하여 국궁·사배·홍·평신한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따라 한다.

망료(望燎): 임금은 찬례의 인도로 망료위에 가서 북향하여 선다. 집례는 찬자를 이끌고 망료위에 가서 서향하여 선다. 집례의 말에 따라 대축은 축판을 요소(燎所)에서 태운다. 찬례가 예가 끝났음을 아뢰면 임금은 돌아와 소차로 들어간다. 아헌관·종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나가고, 배향관은 인의의 인도로 홍문 밖에 취위하고, 감찰과 모든 집사는 찬인의 인도로 배위에 복위하여 사배한 후 나간다. 알자와 찬자도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능사는 각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물러간다.

조선후기에는 기신제의 운영에서 주로 능기신제를 간략하게 지내는 여부가 중

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인조 때에 예조에서 각릉의 기신제를 간략하게 실행할 것을 청한 사례가 있고,<sup>26)</sup> 또 분향만으로 기신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sup>27)</sup> 또 재해가 들었을 때는 기신제에 사용하는 물품을 줄여 없애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sup>28)</sup>

영조 때에도 祭需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 대체로 제수가 많은 것이 문제였는데, 영조의 의도는 반드시 줄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하들의 상소에 의해 제수가 줄여졌다.<sup>29)</sup>

한편 기신제의 운영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점은 기신제와 다른 제사가 같은 날인 경우의 처리방식이다. 광해군 때에 安順王后와 成宗의 기신제와 臘享 大祭가 겹치게 되었다. 예조에서의 건의는 납향은 大祭이고 기신제는 別祭이므로 납향을 지내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납향은 대묘에 함께 제향하고 기신은 왕릉에서 지내서 다른 제사와는 다르므로 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신제를 지낼 것을 청하였다.<sup>30)</sup> 대신들의 의논 결과 후세로 오면서 인정이 忌日을 중시하는 것으로 되어 기신제를 폐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기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전기부터 사대부들의 경우에도 『주자가례』를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한 사시제보다는 忌日祭에 보다 중점을 둔 현상과 매우 비슷하다. 광해군 1년때의 논의에서도 경중을 따지면 납향을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人情을 고려하여 忌日제사를 폐지할 수 없다는 쪽으로 진행된 것은 같은 방향의 의견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종 6년(1665)에 동지와 중종의 기신제가 겹치게 되자 기신제만 거행한 사례<sup>31)</sup>나 정조 20년(1796)에 종묘와 경모궁의 납향이 宣陵의 기신제와 겹친 경우에 납향을 대리로 지내게 하고 있는 사례<sup>32)</sup>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신제는 이후 고종대에는 望哭禮로 거행하게 된다. 직접 능에 행차하지는 않고 便殿의 계단 위에서 망곡례로 치르는 사례가 여러 차례 시행된 것이다.<sup>33)</sup>

26)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甲申.

27)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2월 甲申.

28)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12월 丁丑.

29) 『영조실록』 권104, 영조 40년 8월 辛巳; 『영조실록』 권104, 영조 40년 8월 壬辰.

30) 『광해군일기』 권23, 광해군 1년 12월 乙丑.

31) 『현종실록』 권11, 현종 6년 10월 辛未.

32) 『정조실록』 권45, 정조 20년 10월 癸巳.

## 5.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에 왕실에서 지낸 기신제의 실행과 운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해보았다. 돌아가신 이의 忌日에 지내는 제사인 忌辰祭는 제사 가운데 대표적인 예이다. 오늘날에도 명절의 茶禮나 한식 또는 추석 때의 省墓 등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있으나 기제사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가 지배적이었던 고려 때에는 제사를 사찰에서 올리는 齋의 형태로 행했으며, 특히 부모의 忌日齋에 대해서는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큼 중시하였다. 국왕의 경우에도 왕실에서 忌辰齋를 치를 때는 선왕이나 선후의 진영(초상화)을 모신 진전사원에서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다.

이러한 고려 왕실의 기신제는 조선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래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한 제사는 사계절의 중간달(음력 2·5·8·11월)에 4대조까지의 조상에게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四時祭이다. 반면 기일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므로 시제와 같은 길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공자 때에는 없다가 송나라 때에 시작되었는데, 사시제 보다는 비중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기일에 지내는 제사가 사시제보다 중시되었다.

이런 현상은 왕실에서도 고려 때 형태의 기신제가 유지되었던 것에서 비슷한 측면이 보인다. 조선왕조에서 의례가 비교적 불교식에서 유교식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에 지냈던 기신제 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것이다. 다만 조선전기에는 불교식의 忌辰齋와 함께 文昭殿과 같은 原廟에서의 忌辰祭가 치러지는 이중적인 형태로 시행되었다. 문소전에서의 제사도 초기에는 眞殿의 성격이 강하다가 국왕 家廟로서의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문소전에서의 기신제의는 『국조오례의』에 실릴 만큼 기신제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게 되었다.

기신제에 대해서는 불교에 기반한 만큼 혁파논의가 조선전기 내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성종대에는 일시적으로 혁파되기도 하였다. 이후 복설되었다가 중종대에 가서 다시 혁파되었으며, 명종대에도 일시적으로 복설되었으나 선조 이후로는 완전히 혁파되었다.

33) 『고종실록』 권35, 고종 34년 5월 16일.

선조 이후에는 불교식 기신제를 대체하여 왕릉에서 기신제가 행해졌다. 때로는 기신제가 원묘에서 거행되기도 하였으나 왕릉에서 거행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특히 영조는 왕릉에서 행하는 기신제에 직접 참여하여 친행하는 예를 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왕이 왕릉 기신제에 참여하는 예가 등장하였고, 이를 의절로 만들었으며, 국왕 뿐만이 아니라 왕세자가 주체가 되는 기신제의가 등장하였다. 또한 영조 때에 새롭게 정비된 園制에 의해 園에서 치러지는 기신제의도 정비되었다.

능이나 원에서 치러지는 기신제의는 국왕의 능행을 합리화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으며, 국왕의 관심도 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하들은 기신제에 동원되는 祭品을 줄일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고, 祧遷한 왕릉에는 기신제를 행하지 말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신제와 다른 제사가 겹칠 경우에도 기신제를 우선하여 지낸 것을 보면 기신제의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朱子家禮』, 『國朝五禮儀』, 『增補文獻備考』, 『宮園式禮補編』, 『春官通考』.
- 허홍식, 1986 『佛敎와 融合된 王室의 祖上崇拜』,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 金鐸, 1990 『朝鮮前期의 傳統信仰 — 衛護와 忌辰齋를 중심으로 —』, 『宗敎研究』 6-1.
- 한우근, 1993 『世宗朝 禪敎兩宗에로의 整備』, 『儒敎政治와 佛敎』, 일조각.
- 지두환, 1994 『朝鮮前期 儀禮研究』, 서울대 출판부.
- 李秉然, 1994 『朝鮮前期 內佛堂·忌辰齋의 革罷論議와 그 推移』, 『九谷黃鍾東敎授停年紀念史學論叢』.
- 심효섭, 2003 『조선전기 忌辰齋의 設行과 儀禮』, 『佛敎學報』 40.
- 鄭景姬, 2004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 23.

**Abstract**

## Enforcement and Management of Gishinje(忌辰祭) in late Chosun dynasty

Jung, Jae-Hoon

Gishinje(忌辰祭) is ancestral rites which is holded in anniversary of one's death. It is managed with the times or fashionable religion or widespread ideas in various ways. During Buddhism-dominated Goryeo Dynasty, the Buddhist ancestral rites had been doing in Gishinjae(忌晨齋) style which was ancestral rites in anniversary of the preceding king's death or the preceding queen's death. In contrast, the confucian ancestral rites had been doing in Gishinje(忌辰祭) style. There was a religious difference or implementation methodology or doing place between the two.

In Goryeo Dynasty Gishinjae(忌晨齋) was performed not in the Buddhist temples but at the grave. In contrast, Gishinje(忌辰祭) was done in the family shrine in principle, in king case was performed at the grave. However up to the first half of the Chosun dynasty Gishinje had been doing in Gishinjae(忌晨齋) style, by Jungjong(中宗) was abolished. Since then Gishinje(忌辰祭) had been doing in the confucian ancestral rites, but it assumed more importance after practice rites in late Chosun dynasty.

Since Seonjo Gishinje(忌辰祭) had been done at the grave by replacing the Buddhist ancestral rites. Sometimes Gishinje was performed in the wonmyo(原廟), however was generally done in royal tomb. Especially Yeongjo(英祖) personally participated in Gishinje done in royal tomb. Gishinjeui(忌辰祭儀) had been gradually organized, in addition, crown prince participated in Gishinje. Also, Gishinje(忌辰祭) which was done in the won(園) was organized

**Keywords:** Gishinjae(忌晨齋), Gishinje(忌辰祭), Gishinjeui(忌辰祭儀)